

스트레스가 고등학생의 흡연·음주에 미치는 영향

김종문·박영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한국교원대학교*

The Influence of Stress on Smoking and Drinking of High School Students

Kim, Jong-Mun · Park, Young-Soo*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research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al state of adolescent smoking and drinking, and to study how stress influences on smoking and drinking of high school students. This data was collected from 837 first and second grade students in a vocational high school in Go-yang city, Gyeonggi province. Data analysis consisted of frequency, percentage, Chi-square, T-test,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51.7% of the students have never smoked, while 48.3% have experienced smoking. Most students started smoking in the second year of the middle school, though 17.6% of the smokers already started in the elementary school. The strongest motive of initial smoking was curiosity, next the inducement of friends, and 10.9% of them smoked to get rid of stress. Their favorite place for smoking was in the order of the entertainment centers, schools, and private academies. They personally purchased cigarettes mostly at the store. Most of them smoked less than 5 cigarettes a day, but 3.7% smoked more than a pack of cigarettes a day, usually with friends rather than alone.

Second, the ratio of drinking was relatively high 78.1%, and their initial drinking experience was most frequent at the third year of the middle school. The initial motive of drinking was mostly curiosity and the inducement of friends, but 10.7% of them started drinking to reduce stress and anxiety. The places for buying alcohol and drinking were bars or restaurants. The ratio of habitual drinking was 45.1%, and the ratio of irregular drinking was 53.3%. 1.8% of the drinking students enjoyed drinking everyday. The amount of drinking varied from half a bottle to two bottles of Soju, and the drinking problem was serious to see that 11% of them drank more than two bottles at a time. Because 84.4% drank in groups with friends, a thorough and systematic supervision and education of the peer group drinking is essential.

Third, a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matters and smoking,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smoking and sex, but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smoking and school years. Adolescent smoking was also related with scholastic achievement, the number of friends, and the existence of parents.

Fourth, a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matters and drinking,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drinking and sex, bu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drinking and school years.

Fifth, the average index of stress was students themselves(2.58), school life(2.53), family life(2.19), friends(2.00), and the total index of stress was 2.33.

Sixth, there appeared a marginal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drinking and smoking' in Pearson coefficient of correlation r to see the influence of stress on smoking and drinking. The difference of the average index of stress according to smoking and drinking bears meaningful difference for all students, smokers and non-smokers, drinkers and abstainers in students themselves, school life, family life, friends, and total stress. Smoking has an effect on family life most, school life next, and drinking has an effect on school life most, family life next, with the explanation power of 11% and 9% respectively, in a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on smoking and drinking among the factors of stres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는 청소년들 중에는 아직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들 나름대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잘 적응해 가며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아주 작은 스트레스조차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크게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신분이다. 이때는 신체적 변화 및 학교 생활의 적응, 학업 성적, 친구 관계 및 이성 문제, 불우한 가정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고민과 갈등을 풀어 가는 과정에 있어 주변의 어른들이나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억압과 구속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방해만 되는 매개체로 판단하게 된다. 더욱 우리 사회 전반을 보더라도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바람직하게 해소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실정에서 청소년들은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갈등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를 또래 집단 또는 그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부적응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할 뿐 아니라 주체성 확립이라는 발달상의 과제를 완수해야 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적응함과 동시에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밖으로 쉽게 표출된다(전덕임, 양익홍, 1998).

청소년의 시기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느 시기보다 왕성한 성장을 보이게 되며 특히 신체적으로는 거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정신적으로는 호기심이 많고 갈등과 방황의 시기 이기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거나 또래 집단

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를 찾다가 음주와 흡연을 접하게 되고 바로 이러한 흡연과 음주가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구심점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중반까지는 유교문화와 사회의 일반통념으로 인해 청소년 및 여성흡연은 상당히 잘 억제되어 왔으나(김일순, 1989), 1980년 초에 들어와서는 교복 자율화, 1990년대의 학교의 남녀 공학 등으로 상징되는 중·고등학교의 자율화 물결이 일어남에 따라 중·고등학생들의 흡연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남자 고교생의 평균 흡연률은 32.6%이고, 여자 고교생의 경우 7.5%로, 이는 1988년 조사와 비교할 때 남학생은 23.9%에서 32.6%로, 여학생은 1.3%에서 7.5%로 증가되었다. 특히 여학생은 1988년에 비해 흡연자 수가 6배 다 더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음주도 음주 상태에서 현실 판단 능력과 자기 통제력을 상실케 해 공격행동이나 자해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이며 청소년기의 문제성 음주는 성인기의 알코올 관련 문제와 관련이 높아 그 위험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음주는 날로 개방되어 가는 사회상을 반영하듯 온갖 비행과 폭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기성세대들의 묵인과 잘못된 음주문화 때문에 청소년들의 음주는 날로 늘어나고 그 유해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선행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에 관해서 수없이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들의 대부분은 흡연과 음주를 따로 구분하였으며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흡연과 음주의 실태 분석이나 청소년들의 주변환경과 흡연·음주를 비교 분석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스트레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지만 스트레스를 측정할 만한 올바른 평가문항이 별로 없었고 더욱이 흡연·음주와 스트레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 연구는 청소년 중 흡연과 음주가 가장 심각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에서 직접 그 실태를 조사해보고 고등학생의 흡연과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우리 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더욱 가중되게 될 스트레스는 흡연·음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고등학생들의 흡연 및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정신적, 신체적으로 덜 성숙된 고등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으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思考)를 하게 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금주를 실천하게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고등학생의 흡연·음주의 실태 및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하고 스트레스가 흡연·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가. 고등학생의 흡연·음주 실태는 어떠한가?
- 나. 고등학생의 인적 사항과 흡연·음주 유무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 다.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 라. 스트레스가 고등학생의 흡연·음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 가. 연구대상자를 경기도 G시 I실업계 고등학교 남녀 1학년, 2학년 학생으로 한정된 것은 그 결과를 전체 고등학생으로 확대·해석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 나. 이 연구에서 스트레스 항목을 자기 자신, 학교 생활, 가정 생활, 교우 관계 4가지로 제한을 하였다.

4.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등학생

청소년이란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에 있는 남녀로서 그 구체적인 시기는 중학교에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로 보는데(김문실, 이상미, 이소우, 1994) 이들 청소년 중 고등학생이란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말하는 데 이 논문에서 고등학생이란 경기도 G시에 위치한 I정보산업고에 재학중인 1, 2학년 남녀학생들을 말한다.

나. 스트레스(stress)

스트레스란 지금 자기에게 부과된 요구 수준과 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간에 어떤 불 균형을 지각할 때 일어나는 생리적 심리적 반응을 말하는데(1996. 장현갑 외), 이 논문에서의 스트레스란 일상생활 중 자기 자신, 학교 생활, 가정 생활, 교우 관계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다. 흡연자

이 논문에서 고등학생의 흡연 유무를 비흡연자와 흡연자로 구분하였는데 흡연자란 과거에 한 번이라도 흡연을 경험한 학생이나 현재 흡연을 계속하고 있는 학생을 흡연자라고 정의하였다.

라. 음주자

이 논문에서 고등학생의 음주 유무를 비음주자와 음주자로 구분하였는데 음주자란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음주를 경험한 학생이나 현재 음주를 계속하고 있는 학생을 음주자라고 정의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G시의 I실업계 고등학교

〈표 II-1〉 연구 대상 (단위: 명)

학 년	남	여	계
1	187	254	441
2	160	236	396
합 계	347	490	837

교 1, 2학년 남·여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1, 2학년만을 모집단으로 한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는 3학년 2학기가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현장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3학년은 제외하였다. 조사 대상은 837명(남: 347, 여: 490)으로 하였으며 상세한 연구 대상은 〈표 II-1〉과 같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1, 2학년 모든 반에 들어가서 8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설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다음 한 문항 한 문항을 읽어가며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중 845부를 회수하여 이들 중 불성실한 응답자의 설문지 8부를 제외한 나머지 설문지 837부를 자료로 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기간

이 연구는 2001. 3. 10~2002. 10. 20까지 다음 〈표 II-2〉와 같이 실시하였다.

3. 측정 도구

가. 인적 사항 및 흡연·음주경험 측정

인적 사항 및 흡연·음주에 관한 내용은 장영희의 설문지(1995), 김용국의 설문지(1998) 등이 연구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흡연 유무를 묻는 방법은 '비흡연자'는 0점, '흡연자'는 1점으로 측정하였다.

음주 유무를 묻는 방법은 '비음주자'는 0점, '음주자'는 1점으로 측정하였다.

나. 스트레스 측정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측정도구는 최해림(1986)

〈표 II-2〉 연구 내용 및 기간

순서	연구 내용	연구 기간
1	연구계획 및 자료수집	2001. 3. 10 ~ 2001. 4. 30
2	설문지 작성	2001. 5. 1 ~ 2001. 6. 30
3	사전조사 실시	2001. 9. 1 ~ 2001. 10. 30
4	설문지 검토 및 수정	2001. 11. 1 ~ 2001. 11. 30
5	설문지 배부 및 회수	2001. 12. 1 ~ 2001. 12. 20
6	자료처리 및 분석	2002. 2. 1 ~ 2002. 5. 30
7	논문 작성	2002. 6. 1 ~ 2002. 10. 20

〈표 II-3〉 설문지 구성 내용

구성 지표	구성 내용	문항수
인적 사항	성별(1), 학년(1), 성적(1), 또래집단(1), 가정환경(1)	5문항
흡연·음주에 관한 사항	흡연(7), 음주(8)	15문항
스트레스에 관한 사항	자기 자신(10), 학교 생활(10), 가정 생활(10), 교우 관계(10)	40문항
계		60문항

이 제작한 '대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대응 설문지'와 이명희(1989), 이상수(1992), 박순길(2000)의 설문지를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영역을 자기 자신, 학교 생활, 가정 생활, 교우 관계 4가지로 하여 각 영역별로 1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지의 점수는 '전혀 받지 않는다' 1점에서 '아주 심하게 받는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이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자기 자신 .74, 학교 생활 .85, 가정 생활 .81, 교우 관계 .81, 전체 .75이다.

설문지의 구체적 내용은 〈표 II-3〉과 같다.

4. 자료처리 방법

수집된 자료는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WIN

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 1) 조사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흡연·음주의 실태는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인적 사항과 흡연·음주 유무의 관련성은 χ^2 로 산출하였다.
- 3) 스트레스 지수는 백분율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4) 스트레스가 흡연·음주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상관관계, T-검정, 단계별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으로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자의 인적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은 〈표 III-1〉과 같

〈표 Ⅲ-1〉 인적 사항 명(%)

변 수	구 분	빈도(백분율)
성 별	남	347(41.5)
	여	490(58.5)
학 년	1학년	441(52.7)
	2학년	396(47.3)
성 적	상	240(28.7)
	중	404(48.3)
	하	193(23.1)
친구수	1명 이하	100(11.9)
	2~3명	387(46.2)
	4~5명	222(26.5)
	6명 이상	128(15.3)
부 모	양친	687(82.1)
	재혼부모	41(10.6)
	편부모	89(5.0)
	모두없음	20(2.4)
계		837(100)

다. 〈표 Ⅲ-1〉을 살펴보면 인적 사항은 성별, 학년, 학업 성적, 친구의 수, 부모님의 생존 여부를 물어 보았다.

여기에서 나타난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347명(41.5%), 여학생이 490명(58.5%)으로 다소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441명으로 52.7%, 2학년이 396명으로 47.3%의 비율을 보였다.

학업 성적의 경우 상(上)이 240명으로 28.7%, 중(中)이 404명으로 48.3%, 하(下)가 193명으로 23.1%로 나타났다.

방과후에 어울리는 친구의 수는 '1명 이하'가 11.9%, '2~3명'이 46.2%, '4~5명'이 26.5%, '6명 이상'이 15.3%로 '2~3명'의 친구를 가진 학생들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4~5명'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동거여부는 '양친 부모와 함께 산다'가 82.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하고만 함께 산다'가 10.6%로 나타났으며, 재혼한 부모 즉,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혹은 새아버지와 친어머니와 함께 산다'가 4.9%,

'양친 부모 모두와 헤어져 산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2.4%로 나타났다.

2. 고등학생의 흡연·음주 실태

가. 고등학생의 흡연 실태

전체 고등학생의 흡연 실태 분석의 결과는 〈표 Ⅲ-2〉와 같다. 〈표 Ⅲ-2〉를 살펴보면 흡연 유무에서 '비흡연자'가 433명으로 51.7%, '흡연자'가 404명으로 48.3%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자인 장영희(1995)의 36.9%, 김용국(1998)의 24.7% 보다 다소 높은 수치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최초 흡연 시기는 '초등학교'가 17.6%, '중학교'가 67.1%(1학년 18.6%, 2학년 28.5%, 3학년 20.0%), '고등학교'가 15.4%(1학년 13.4%, 2학년 2.0%)로 나타났다. 흡연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시기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순으로 나타나 중학교 때 가장 많이 담배를 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부터 보다 구체적인 금연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초등학교 때 흡연을 처음 접한 것이 고등학교 때 흡연을 처음 접한 것 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다른 연구논문과 비교해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 담배를 처음 접하게 되는 시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초 흡연 동기는 '호기심'이 218명(54.0%), '친구의 권유'가 117명(29.0%), '스트레스 해소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가 44명(10.9%)로 나타났다. 따라서 처음 담배를 접하게 되는 원인이 스트레스에 의한 불안한 마음보다는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가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담배를 피우는 장소는 '유흥업소(술집, 카페, 노래방 등)'에서가 25.7%(104명), '학교나 학원에서 22.0%(89명), '외부(공원, 길거리 등)'에서 21.3%(86명), '자기집'에서 12.4%(50명), '친구집'에서 3.7%(15명), 기타 14.9%(60명)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주로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표 III-2〉 고등학생의 흡연 실태

N(%)

변 수	구 분	빈도(백분율)	계
흡연 유무	비흡연자	433(51.7)	837(100)
	흡연자	404(48.3)	
최초 흡연시기	초등학교	71(17.6)	404(100)
	중학교 1학년	75(18.6)	
	중학교 2학년	115(28.5)	
	중학교 3학년	81(20.0)	
	고등학교 1학년	54(13.4)	
	고등학교 2학년	8(2.0)	
최초 흡연동기	호기심	218(54.0)	404(100)
	친구권유	117(29.0)	
	선배권유	24(5.9)	
	스트레스 해소	44(10.9)	
	기타	1(.2)	
흡연 장소	자기집	50(12.4)	404(100)
	친구집	15(3.7)	
	학교나 학원	89(22.0)	
	외부(공원 등)	86(21.3)	
	유흥업소	104(25.7)	
	기타	60(14.9)	
담배 구입 방법	가게	282(69.8)	404(100)
	집	11(2.7)	
	친구	105(26.0)	
	자동판매기	1(.2)	
	기타	5(1.2)	
흡연량	하루 5개피 이하	180(44.6)	404(100)
	6~10개피	129(31.9)	
	11~15개피	64(15.8)	
	16~20개피	16(4.0)	
	한갑 이상	15(3.7)	
흡연 대상	혼자서	49(12.1)	404(100)
	친구와	336(83.2)	
	이성친구와	5(1.2)	
	선후배와	7(1.7)	
	기타	7(1.7)	

담배를 주로 피웠으며 여학생들은 카페나 노래방 등에서 피우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여기에서 기타로 응답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담배를 피우는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피우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주로 담배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가게'에서가 69.8%(282명)로 월등히 높

았으며, '친구'를 통해서가 26.0%(105명), '집'에서 부모님의 담배를 가져오는 것이 2.7%(11명), '자동판매기'에서는 0.2%(1명), 기타가 1.2%(5명)로 나타나 담배는 주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장소를 알고 그곳에서 학생들 본인이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흡연을 하는 양은 '하루 5개피 이하'가

44.6%(180명), '6~10개피'가 31.9%(129명), '11~15개피'가 15.8%(64명), '16~20개피' 4.0%(16명), '한갑 이상'이 3.7%(15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담배를 함께 피는 대상은 '친구와 함께'가 83.2%(336명), '혼자서'가 12.1%(50명), '선·후배와 함께'가 1.7%(7명), '이성친구와 함께'가 1.2%(5명), 기타 1.7%(7명)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울 때 대부분 친구와 함께 피는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학교나 집에서 또래집단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고등학생의 음주 실태

전체 고등학생의 음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Ⅲ-3>과 같이 나타났다. <표 Ⅲ-3>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음주 유무는 '비음주자'가 21.9%(183명), '음주자'가 78.1%(654명)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술을 접하게 된 시기는 초등학교 때가 13.3%로 나타났고, 중학교 때가 53.5%(중1 15.4%, 중2 25.7%, 중3 27.2%)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때는 18.3%(고1 15.7%, 고2 2.6%)로 나타났다. 술은 중학교 3학년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담배는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담배를 먼저 접하게 되고 술을 조금 뒤에 접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술을 마시게 된 동기는 '호기심'이 39.6%(259명), '친구의 권유'가 34.1%(223명), '스트레스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가 10.7%(70명), '선배의 권유'가 6.4%(42명), 기타가 9.2%(60명)로 나타났다. 따라서 처음 술을 접하게 된 동기는 '호기심'과 '친구의 권유'가 의 대부분이지만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기타'에 응답한 학생들의 최초 음주 동기의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권유에 의해서 인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의 음주 대한 부모님들의 시각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로 음주를 하는 장소는 '술집 또는 음식점'에서가 49.5%(337명), '친구집'에서 22.6%(148명),

'자기집'에서 7.5%(49명), '외부(공원 등)'에서 6.7%(44명), '노래방'에서 6.0%(39명), 기타 7.6%(5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에 있어서도 고등학생들이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쉽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를 응답한 고등학생들의 음주 장소는 특별한 음주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음주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주로 술을 구입하는 방법은 '술집 또는 음식점' 48.9%(320명), '동네슈퍼' 33.8%(221명), '친구집' 10.7%(70명), '자기집' 4.0%(26명), '기타' 2.6%(17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음주 장소와 마찬가지로 술을 구입하는 방법도 술집이나 동네슈퍼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의 회수는 '거의 매일' 마신다가 1.8(12명), '매주 1~2회' 21.3%(139명), '매달 1~2회' 22.0%(144명), '친구와 어울릴 때만' 28.4%(186명), '특별한 기념일(수학여행, 소풍, 생일 등)에만' 25.1%(164명), 기타 1.4%(9명)로 나타났다. 일정하게 술을 마시는 고등학생의 비율이 45.1%로, 가끔씩 술을 마시는 학생들의 53.3%과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거의 매일 마시는 고등학생도 극소수지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에 대한 알코올중독 예방 대책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주 마시는 술을 맥주 또는 소주로 볼 때 음주량은 '맥주 반병 또는 소주 1잔'이 10.7%(70명), '맥주 1병 또는 소주 2잔'이 13.0%(85명), '맥주 2병 또는 소주 반병'이 22.0%(144명), '맥주 4병 또는 소주 1병'이 28.4%(186명), '맥주 8병 또는 소주 2병'이 14.8%(97명), '맥주 8병 이상 또는 소주 2병 이상'이 11.0%(72명)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것보다는 한번 술을 마실 때 그 양이 매우 많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에 대한 절주 또는 금주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술을 함께 마시는 대상은 '친구와 함께'가 84.6%(553명)로 나타나 거의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어른과 함께'도 5.8%(38명)로 나타나 이제는

〈표 III-3〉 고등학생의 음주 실태

N(%)

변 수	구 분	빈도(백분율)	계
음주유무	비음주자	183(21.9)	847(100)
	음주자	654(78.1)	
최초음주시기	초등학교	87(13.3)	654(100)
	중학교1학년	101(15.4)	
	중학교2학년	168(25.7)	
	중학교3학년	178(27.2)	
	고등학교1학년	103(15.7)	
	고등학교2학년	17(2.6)	
최초음주동기	호기심	259(39.6)	654(100)
	친구권유	223(34.1)	
	선배권유	42(6.4)	
	스트레스해소	70(10.7)	
	기타	60(9.2)	
음주장소	집	49(7.5)	654(100)
	친구집	148(22.6)	
	술집 또는 음식점	324(49.5)	
	노래방	39(6.0)	
	외부(공원 등)	44(6.7)	
	기타	50(7.6)	
술구입방법	슈퍼	221(33.8)	654(100)
	술집 또는 음식점	320(48.9)	
	집	26(4.0)	
	친구	70(10.7)	
	기타	17(2.6)	
음주회수	거의 매일	12(1.8)	654(100)
	매주 1~2회	139(21.3)	
	매달 1~2회	144(22.0)	
	친구와 어울릴 때만	186(28.4)	
	특별한 기념일에만	164(25.1)	
	기타	9(1.4)	
음주량	맥주반병 또는 소주1잔	70(10.7)	654(100)
	맥주1병 또는 소주2잔	85(13.0)	
	맥주2병 또는 소주반병	144(22.0)	
	맥주4병 또는 소주1병	186(28.4)	
	맥주8병 또는 소주2병	97(14.8)	
	맥주8병 또는 소주2병 이상	72(11.0)	
음주대상	혼자	5(.8)	654(100)
	친구와	553(84.6)	
	이성친구와	22(3.4)	
	선후배와	25(3.8)	
	어른과	38(5.8)	
	기타	11(1.7)	

고등학생들에 대한 음주행위에 부모님들을 비롯한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인적 사항과 흡연·음주의 관련성

가. 성별·학년별에 따른 흡연의 관련성

고등학생의 성별·학년별에 따른 흡연 관련성은 <표 III-4>와 같이 나타났다. <표 III-4>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 학생 837명 중 남학생이 41.5%인 347명이며 여학생은 58.5%인 490명이다. 흡연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 중 먼저 성별에 따른 관련성을 살펴보면 전체 837명 중 남학생 가운데 '비흡연자'가 18.6%인 156명, '흡연자'가 22.8%인 191명인데 반해 여학생 중 '비흡연자'가 33.1%인 277명, '흡연자'가 25.4%인 21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다시 살펴보면 전체 학생수 837명 중에서 남학생 347명을 100%로 봤을 때는 '비흡연자'가 45.0%(156명), '흡연자'가 55.0%(191명)로 나타났다. 여학생 490명을 100%로 봤을 때는 '비흡연자'가 56.5%(277), '흡연자'가 43.5%(213명)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어슨의 카이제곱값이 10.898이고 자유도가 1일 때 점근 유의확률은 .001이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흡연 유무의 관련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p<.001).

학년에 따른 흡연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표 III-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 조사 대상자 837명 중 1학년이 441명(52.7%), 2학년이 396명(47.3%)으로 나타났다. 1학년은 전체 학생들 중 '비흡연자'는 28.2%(236명), '흡연자'는 24.5%(205명)로 나타났으며 2학년은 396명 중 '비흡연자'가 23.5%(197명), '흡연자'는 23.8%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837명 중 1학년 441명을 100%로 봤을 때는 '비흡연자'가 53.5%(236명), '흡연자'가 46.5%(205명)로 나타났고, 2학년 396명을 100%로 봤을 때 '비흡연자'가 49.7%(197), '흡연자'가 50.3%(199명)로 나타났다. 피어슨의 카이제곱값은 1.186이며 자유도가 1일 때 점근 유의확률은 .376이다. 따라서 학년별에 따른 흡연의 관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p>.05).

나. 성별·학년별에 따른 음주의 관련성

고등학생의 성별·학년별에 따른 음주의 관련성은 <표 III-5>과 같이 나타났다. <표 III-5>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 학생 837명 중 남학생이 41.5%인 347명이며 여학생은 58.5%인 490명이다. 먼저 성별에 따른 음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전체 837명 중 남학생은 '비음주자'가 8.8%인 74명, '음주자'가 32.6%인 273명이고, 여학생은 '비음주자'는 13.0%인 109명, '음주자'는 45.5%인 38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남학생 347명을 100%로 봤을 때 남학생 중 '비음주자'가 21.3%(74명), '음주자'가 78.7%(273명)로 나타났다.

<표 III-4> 성별·학년별에 따른 흡연의 관련성

N(%)

변수	분류	흡연 유무		전 체	χ^2	p
		비흡연자	흡연자			
성별	남자	156(45.0)	191(55.0)	347(100)	10.898	.001***
	여자	277(56.5)	213(43.5)	490(100)		
전 체		433(51.7)	404(48.3)	837(100.0)		
학년	1학년	236(53.5)	205(46.5)	441(52.7)	1.186	.276
	2학년	197(49.7)	199(50.3)	396(47.3)		
전 체		433(51.7)	404(48.3)	837(100.0)		

*** p<.001

〈표 Ⅲ-5〉 성별·학년별에 따른 음주의 관련성

N(%)

변수	분류	음주 유무		전 체	x ²	p
		비음주자	음주자			
성별	남자	74(21.3)	273(78.7)	347(100)	.100	.751
	여자	109(22.2)	381(77.8)	490(100)		
전 체		183(21.9)	654(78.1)	837(100.0)		
학년	1학년	130(29.5)	311(70.5)	441(100)	31.637	.000**
	2학년	53(13.4)	343(86.6)	396(100)		
전 체		183(21.9)	654(78.1)	837(100)		

** p < .01

여학생 490명을 100%로 봤을 때는 여학생 중 '비음주자'가 22.2%(109명), '음주자'가 77.8%(381)로 나타났다. 피어슨의 카이제곱값은 .100이며 자유도가 1일 때 접근 유의확률은 .751이다. 따라서 P값이 유의수준 .05보다 크므로 남녀 성별에 따른 음주유무의 관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년별에 따른 음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표 Ⅲ-5〉에서 나타났듯이 전체 837명 중 1학년은 '비음주자'가 15.5%(130명), '음주자'가 37.2%(311명)로 나타났으며, 2학년은 '비음주자'가 6.3%(53명), '음주자'가 41.0%(343명)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1학년 441명을 100%로 봤을 때는 '비음주자'가 29.5%(130명), '음주자'가 70.5%(311명)로 나타났다. 2학년 396명을 100%로 봤을 때는 '비음주자'가 13.4%(53명), '음주자'가 86.6%(343명)로 나타났다. 여기에 따른 카이제곱값은 31.637이고 자유도가 1일 때 접근 유의확률은 .000이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음주유무의 관련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p < .01).

다. 학업 성적, 친구의 수, 부모에 따른 흡연의 관련성

고등학생의 학업 성적, 자주 어울리는 친구의 수, 부모의 생존 여부와 흡연유무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Ⅲ-6〉과 같다.

먼저 '학업 성적'과 흡연 유무의 관련성에 대해

여 알아보면 〈표 Ⅲ-6〉과 같이 총 사례수 837명 중 성적이 '상'인 학생 240명을 100%로 보았을 때 '비흡연자'가 69.6%(167명), '흡연자'가 30.4%(73명)로 나타났다. 성적이 '중'인 학생 404명을 100%로 보았을 때 '비흡연자'가 52.5%(212명), '흡연자'가 47.5%(192명)로 나타났다. 성적이 '하'인 학생 193명을 100%로 보았을 때 '비흡연자'가 28.0%(54명), '흡연자'가 72.0%(139명)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학업 성적에 따른 흡연유무 관련성에서 피어슨의 카이제곱값이 74.326, 자유도(n)가 2일 때 접근 유의확률은 .000이다. 즉 고등학생의 학업 성적과 흡연유무는 관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p < .01).

다음은 '함께 어울리는 친구의 수'와 고등학생의 흡연유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표 Ⅲ-6〉에서 나타났듯이 총 사례수 837명 중 친구의 수가 '1명 이하'인 학생 100명을 100%로 보았을 때 '비흡연자'가 68.0%(68명), '흡연자'가 32.0%(32명)로 나타났다. 친구의 수가 '2~3명'인 학생 387명을 100%로 보았을 때 '비흡연자'가 58.4%(226명), '흡연자'가 41.6%(161명)로 나타났다. 친구의 수가 '4~5명'인 학생 222명을 100%로 보았을 때 '비흡연자'가 42.8%(95명), '흡연자'가 57.2%(127명)로 나타났으며, 친구의 수가 '6명 이상'인 학생 128명을 100%로 보았을 때 '비흡연자'가 34.4%(44명), '흡연자'가 65.6%(84명)로 나타났다. 친구의 수에 따른 흡연유무에서 피어슨

〈표 Ⅲ-6〉 학업 성적, 친구수, 부모에 따른 흡연의 관련성

N(%)

변수	분류	흡연 유무		전 체	χ^2	p
		비흡연자	흡 연 자			
성적	상	167(69.6)	73(30.4)	240(28.7)	74.326	.000**
	중	212(52.5)	192(47.5)	404(48.3)		
	하	54(28.0)	139(72.0)	193(23.1)		
계		433(51.7)	404(48.3)	837(100.0)		
친구	1 이하	68(68.0)	32(32.0)	100(100)	40.033	.000**
	2~3	226(58.4)	161(41.6)	387(100)		
	4~5	95(42.8)	127(57.2)	222(100)		
	6 이상	44(34.4)	84(65.6)	128(100)		
	계	433(51.7)	404(48.3)	837(100.0)		
부모	양친	370(53.9)	317(46.1)	687(100)	10.019	.018*
	재혼부모	20(48.8)	21(51.2)	41(100)		
	편부모	38(42.7)	51(57.3)	89(100)		
	모두 없음	5(25.0)	15(75.0)	20(100)		
	계	433(51.7)	404(48.3)	837(100.0)		

*p<.05, **p<.01

의 카이제곱값이 40.033이고, 자유도가 3일 때 점근 유의확률은 .000이다. 즉 P값이 유의수준 .01보다 작기 때문에 친구의 수와 흡연유무와는 서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함께 동거하는 부모의 존재 유무와 고등학생의 흡연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면 전체 사례수 837명 중 '양친 부모님과 함께 동거한다'라고 응답한 687명을 100%로 보았을 때 '비흡연자'가 53.9%(370명), '흡연자'가 46.1% (317명)로 나타났다.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와 친어머니'와 함께 동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재혼부모'와 함께 생활한다고 응답한 고등학생 41명을 100%로 하였을 때 '비흡연자'가 48.8%(20명), '흡연자'가 51.2%(21명)로 나타났다. 재혼하지 않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하고만 동거하는 '편부모'와 함께 생활한다고 응답한 학생 89명을 100%로 보았을 때 '비흡연자'가 42.7%(38명), '흡연자'가 57.3%(51명)로 나타났다. '양친 부모가 모두 없음'을 응답한 20명을 100%로 하였을 때 '비흡연자'가 25.0%(5명), '흡연자'가 75.0%(15명)로 나타났다.

함께 동거하는 부모의 존재 형태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흡연유무에서 피어슨의 카이제곱값이 10.019이고, 자유도가 3일 때 점근 유의확률은 .018이다. 즉 P값이 유의수준 .05보다 작기 때문에 부모의 존재 유무 따른 흡연 실태 차이 역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라. 학업 성적, 친구수, 부모에 따른 음주의 관련성

조사대상자의 '학업 성적', '방과후에 함께 어울리는 친구의 수', '함께 동거하는 부모의 존재 여부'와 음주와의 관련성은 〈표 Ⅲ-7〉과 같다. 먼저 '학업 성적'과 음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전체 사례수 837명 중 성적이 '상(上)'인 학생의 수 240명을 100%로 보았을 때 '비음주자'가 31.3%(75명), '음주자'가 68.8%(165명)로 나타났다. 성적이 '중(中)'인 학생의 수 404명을 100%로 보았을 때 '비음주자'가 20.3%(82명), '음주자'가 79.7%(322명)로 나타났다. 성적이 '하(下)'인 학생의 수 193명을 100%로 보았을 때 '비음주자'가 13.5%(26명), '음주자'가 86.5%(167명)로 나

〈표 III-7〉 학업 성적, 친구수, 부모에 따른 음주의 관련성

N(%)

변수	분류	음주 유무		전 체	χ^2	p
		비음주자	음 주 자			
성적	상	75(31.3)	165(68.8)	240(100.0)	20.914	.000**
	중	82(20.3)	322(79.7)	404(100.0)		
	하	26(13.5)	167(86.5)	193(100.0)		
	계	183(21.9)	654(78.1)	837(100.0)		
친구	1 이하	39(39.0)	61(61.0)	100(100.0)	28.147	.000**
	2~3	92(23.8)	295(76.2)	387(100.0)		
	4~5	34(15.3)	188(84.7)	222(100.0)		
	6 이상	18(14.1)	110(85.9)	128(100.0)		
	계	183(21.9)	654(78.1)	837(100.0)		
부모	양친	155(22.6)	532(77.4)	687(100.0)	4.936	.177
	재혼부모	6(14.6)	35(85.4)	41(100.0)		
	편부모	21(23.6)	68(76.4)	89(100.0)		
	모두 없음	1(5.0)	19(95.0)	20(100.0)		
	계	183(21.9)	654(78.1)	837(100.0)		

**p<.01

타났다. 따라서 학업 성적에 따른 음주유무에서는 카이제곱값이 20.914이고, 자유도가 2일 때 점근 유의확률은 .000이다. 즉 P값이 유의수준 .01보다 작기 때문에 학업 성적과 고등학생의 음주유무와는 서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p<.01).

다음으로 '방과후에 함께 어울리는 친구의 수'에 따른 고등학생 음주유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체 사례수 837명 중 친구수가 '1명 이하'로 응답한 학생의 수 100명을 100%로 보았을 때 '비음주자'가 39.0%(39명), '음주자'가 61.0%(61명)로 나타났다. 친구의 수가 '2~3명'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수 387명을 100%로 보았을 때 '비음주자'가 23.8%(92명), '음주자'가 76.2%(295명)로 나타났다. 친구의 수가 '4~5명'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수 222명을 100%로 보았을 때 '비음주자'가 15.3%(34명), '음주자'가 84.7%(188명)로 나타났다. 친구수가 '6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수 128명을 100%로 보았을 때 '비음주자'가 14.1%(18명), '음주자'가 85.9%(110명)로 나타났다.

방과후에 함께 어울리는 친구의 수에 따른 음주 유무에서는 피어슨의 카이제곱값이 28.147, 자유도가 3일 때 점근 유의확률은 .000이다. 즉 P값이 유의수준 .01보다 작기 때문에 방과후에 함께 어울리는 친구의 수와 고등학생의 음주유무와는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p<.01).

함께 동거하는 부모의 존재 유무와 고등학생들의 음주유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체 사례수 837명 중 '양친 부모님과 함께 동거한다'라고 응답한 687명을 100%로 보았을 때 '비음주자'가 22.6%(155명), '음주자'가 77.4%(532명)로 나타났다.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와 친어머니와 함께 동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재혼부모'와 동거한다고 응답한 41명을 100%로 하였을 때 '비음주자'가 14.6%(6명), '음주자'가 85.4%(35명)로 나타났다. 재혼하지 않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한 분하고만 동거하는 '편부모'와 함께 동거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 89명을 100%로 보았을 때 '비음주자'가 23.6%(21명), '음주자'가 76.4%(68명)로 나타났다. 양친부모가 모두 계시지 않는 '모두 없음'을 응답한 학생의 수 20명을

100%로 하였을 때 '비음주자'가 5.0%(1명), '음주자'가 95.0%(19명)로 나타났다.

동거하는 부모의 존재 유무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음주 유무에서의 피어슨의 카이제곱값이 4.936이고, 자유도가 3일 때 점근 유의확률은 .177이다. 따라서 P값이 유의수준 .05보다 크기 때문에 부모의 존재 유무와 고등학생의 흡연과의 관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P>.05).

4. 스트레스 지수 분석

가. 전체 스트레스 지수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자기 자신, 학교 생활, 가정 생활, 교우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III-8>과 같다. <표 III-8>을 살펴보면 전체의 스트레스 지수는 평균 2.33, 표준편차 \pm .59이다. 이들 스트레스 요인 중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2.58 \pm .67)이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2.53 \pm .89), 가정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2.19 \pm .81), 교우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2.00 \pm .75)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영(1993), 박종미(1997)의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변인 중 자기 자신의 문제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학교 생활과 대인 관계, 가정 생활의 순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이상수(1992)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박재학(1999)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학교 문제, 자기 자신, 교우 관계,

가정 생활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김정겸(1987)이 일반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우 관계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지수 정도를 나타낸 것과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 연구의 대상자가 실업계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학업 성적에 대한 경쟁의식이 부족하고 일과시간이나 방과후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교우 관계는 월만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자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

스트레스 요인 중 자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는 <표 III-9>에 나타난 결과와 같다. <표 III-9>를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는 앞에서 살펴본것과 같이 스트레스 10항목의 전체 평균이 2.58, 표준편차가 \pm .67로 4가지 스트레스 요소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 중 가장 높은 지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아서'였고, 그 다음으로는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잠이 모자라서', '능력 부족 때문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수의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아서', '물건을 잃어 버렸을 때',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의 결과와 이명희의 연구에서 나타난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의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8> 전체 스트레스 지수 N = 837

스트레스 요인	M \pm SD
자기 자신	2.58 \pm .67
학교 생활	2.53 \pm .89
가정 생활	2.19 \pm .81
교우 관계	2.00 \pm .75
전체	2.33 \pm .59

다. 학교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

학교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요인 지수는 <표 IV-10>와 같다. <표 III-10>를 살펴보면 학교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평균 2.53, 표준편차 \pm .89로 나타났으며, 학교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요인 중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낸 요인은 평균 3.04, 표준편차 \pm 1.41의 '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을 못

〈표 IV-9〉 자신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

N = 837

자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	M±SD
1. 뚜렷한 삶의 목표나 신조가 없어서	2.74±1.16
2. 외모나 신체적으로 자신이 없어서	2.76±1.16
3.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2.12±1.20
4.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아서	3.47±1.21
5. 남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서	2.60±1.23
6. 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1.78±1.09
7. 능력 부족 때문에	2.83±1.23
8. 건강이 좋지 않아서	1.79±1.09
9. 잠이 모자라서	2.86±1.47
10.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2.89±1.28
전 체	2.58±.67

〈표 III-10〉 학교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

N = 837

학교 생활에 관한 스트레스 요인	M±SD
1. 숙제가 너무 많고 시험을 자주 보아서	2.47±1.30
2.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많이 해서	1.96±1.26
3. 선생님이 특별한 학생에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1.78±1.13
4. 선생님이 지나치게 간섭하기 때문에	2.37±1.42
5. 선생님이 성의 없이 수업하셔서	2.11±1.31
6.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해서	2.95±1.51
7. 선생님이 꾸중을 하거나 때려서	2.88±1.46
8. 선생님이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 주지 않아서	2.95±1.45
9.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2.82±1.36
10. 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해서	3.04±1.41
전 체	2.53±.89

하게 해서'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이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 주지 않아서'와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해서'가 평균 2.95, 표준편차는 각각 ±1.45, ±1.51로 거의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 다음은 '선생님의 꾸중을 하거나 때려서',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수의 연구에서 나타난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성적으로 학생의 인격을 평가하거나 성적을 공개할 때', '고등학교나 대학을 어디로 가야할지를 결정하기 어려워서'의 중학생 연구 결과와 이명희의 '진학과 진로선택', '성적으로 인격을 평가하거나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등이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라. 가정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

고등학생이 가정 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 정도는 <표 Ⅲ-11>과 같다. <표 Ⅲ-11>을 살펴보면 가정 생활에서 느끼는 전체 스트레스 지수는 평균 2.19, 표준편차 ±.81로 나타났다. 가정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부모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아서'가 평균 2.70 점, 표준편차 ±1.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평균 2.55점의 '부모님이 나의 보다 높은 기대를 해서'와 '부모님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야단을 쳐서'이고, 그 다음은 평균 2.47의 '부모님이 다른 아이나 형제와 비교해서' 순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수와 이명희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순서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교우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

고등학생이 스트레스 지수 중 평소에 교우 관계에 있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지수가 다른 스트레스 요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표 Ⅲ-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Ⅲ-12>를 살펴보면 전체 스트레스 요소 중에서 교우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2.00, 표준편차 ±.7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들이 교우 관계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2.57, 표준편차 ±1.37의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가 가장 높고, 평균 2.23, 표준편차 ±1.24의 '친구와의 싸움이나 말다툼 때문에'가 그 다음이다, 평균 2.19, 표준편차 1.31의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약점을 지적해서', 평균 2.11, 표준편차 ±1.32의 '친하던 친구와 사이가 좋질 않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해림, 이상수, 이명희 등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보면 순서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거의 일치한다.

5. 스트레스가 흡연·음주에 미치는 영향

가. 스트레스와 흡연·음주의 상관관계

스트레스와 흡연·음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 r)를 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Ⅲ-13>과 같다. 그전에 먼저 흡연유무와 음주유무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면 흡연과 음주 유무의 상관관계는 정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나 흡연과 음주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 .430$),

<표 Ⅲ-11> 가정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

N = 837

가정 생활에 관한 스트레스 요인	M±SD
1. 부모님이 싸우거나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2.41±1.39
2. 부모님이 다른 아이나 형제와 비교해서	2.47±1.41
3.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 때문에	2.12±1.28
4. 부모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아서	2.70±1.39
5.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헤어져서	1.50±1.16
6.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어서	1.66±1.11
7. 부모님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야단을 쳐서	2.55±1.41
8. 부모님이 나의 능력보다 높은 기대를 해서	2.55±1.38
9. 부모님이 나를 믿어 주지 않아서	2.35±1.44
10. 형제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1.69±1.13
전 체	2.19±.81

〈표 III-12〉 교우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

N = 837

교우 관계에 관한 스트레스 요인	M±SD
1. 친구와의 싸움이나 말다툼 때문에	2.23±1.24
2. 친구를 이겨야 한다는 경쟁의식 때문에	1.72±1.02
3. 친구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1.85±1.14
4. 여러 사람 앞에서 노래나 발표하는 것 때문에	1.85±1.22
5. 친하던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2.11±1.32
6. 친구가 오해하고 믿어주지 않아서	2.01±1.29
7. 이성 친구가 없어서	2.08±1.43
8. 친한 친구가 없어서	1.45±.91
9.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약점을 지적해서	2.19±1.31
10.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2.57±1.37
전 체	2.00±.75

〈표 III-13〉 스트레스와 흡연·음주의 상관관계

	흡연 유무	음주 유무
흡연 유무	1.000	
음주 유무	.430**	1.000
자기 자신 스트레스	.155**	.178**
학교 생활 스트레스	.250**	.272**
가정 생활 스트레스	.288**	.231**
교우 관계 스트레스	.149**	.155**
전체 스트레스	.282**	.279**

** p<.01

〈표 III-13〉을 살펴보면 흡연 유무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보면 자기 자신에게서 받는 스트레스($r = .155$), 학교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r = .250$), 가정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r = 2.88$), 교우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r = .149$) 모두 정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 자신, 학교 생활, 가정 생활, 교우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흡연경험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음주유무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

보면 〈표 III-14〉에 나타났듯이 자기 자신에게서 받는 스트레스($r = .178$), 학교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r = .272$), 가정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r = .231$), 교우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r = .131$) 모두 정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주 유무 역시 자기 자신, 학교 생활, 가정 생활, 교우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음주경험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스트레스의 지수를 평균으로 산출한 전체 스트레스 지수와 흡연·음주와의 상관관계에서도 흡연유무($r = .282$)와 음주유무($r = .279$) 모두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나. 흡연·음주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지수 비교

1) 흡연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지수 비교

고등학생의 흡연 유무에 따른 비흡연자 집단과 흡연자 집단간 스트레스 지수의 평균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표 III-1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III-14〉에 의하면 먼저 전체 스트레스 지수에서 흡연 유무에 따른 비흡연자 집단과 흡연자 집단간의 스트레스 지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8.483$,

〈표 III-14〉 흡연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지수 비교

스트레스 변인	통 계 치	흡연 유무		t	p
		비흡연자	흡 연 자		
자기 자신	N	433	404	-4.532	.000**
	M±SD	2.4836±.6263	2.6913±.6994		
학교 생활	N	433	404	-7.474	.000**
	M±SD	2.3166±.8376	2.7646±.8964		
가정 생활	N	433	404	-8.693	.000**
	M±SD	1.9739±.6989	2.4408±.8520		
교우 관계	N	433	404	-4.341	.000**
	M±SD	1.8984±.6798	2.1223±.8102		
전체 stress	N	433	404	-8.483	.000**
	M±SD	2.1681±.5273	2.5048±.6195		

** p<.01

〈표 III-15〉 음주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지수 비교

스트레스 변인	통 계 치	음주 유무		t	p
		비음주자	음 주 자		
자기 자신	N	183	654	-5.240	.000**
	M±SD	2.3579±.6409	2.6471±.6652		
학교 생활	N	183	654	-8.178	.000**
	M±SD	2.0727±.7730	2.6616±.8842		
가정 생활	N	183	654	-6.854	.000**
	M±SD	1.8459±.6638	2.2982±.8206		
교우 관계	N	183	654	-4.545	.000**
	M±SD	1.7852±.6885	2.0683±.7598		
전체 stress	N	183	654	-8.402	.000**
	M±SD	2.0154±.5159	2.4188±.5893		

** p<.01

p<.01). 비흡연자 집단의 경우 전체 스트레스의 평균 지수가 2.1681(표준편차: ±.5273)이었고 흡연자 집단의 경우 2.5048(표준편차: ±.6195)로 흡연자 집단이 비흡연자 집단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스트레스를 자기 자신(t = -4.532, p<.01), 학교 생활(t = -7.474, p<.01), 가정 생활(t = -8.693, p<.01), 교우 관계(t = -4.341, p<.01)로 분류하여 비흡연자 집단과 흡연자 집단간의 스트레스 지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여도 모두 흡연자 집단의 스트레스 평균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주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지수 비교

고등학생의 비음주자 집단과 음주자 집단간 스트레스 지수 평균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표 III-15〉와 같이 나타났다. 〈표 III-15〉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스트레스 지수에서 음주 유무에 따른 비음주자 집단과 음주자 집단간의 스트레스 지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8.402, p<.01). 비음주자 집단의 경우 스트레스의 평균 지수가 2.0154, 음주자 집단의 평균 지수는 2.4188로 나타나 비음주자 집단의 보다 음주자 집단이 스트

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스트레스를 자기 자신($t = -5.240, p < .01$), 학교 생활($t = -8.178, p < .01$), 가정 생활($t = -6.854, p < .01$), 교우 관계($t = -4.545, p < .01$)로 더욱 세분화하여 비음주자 집단과 음주자 집단간의 스트레스 지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여도 모두 음주집단의 스트레스 지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에 고등학생들이 자기 자신, 학교 생활, 가정 생활, 교우 관계 등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로 인해 흡연과 음주를 처음 접하게 하거나 지속하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 스트레스 요인이 흡연·음주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생의 흡연과 음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항목들을 측정된 결과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에 의하면 종속변수인 흡연 유무는 비흡연자와 비음주자를 0점, 흡연자와 음주자를 1점으로 하였다. 그리고 각 독립변수인 스트레스는 자기 자신, 가정 생활, 학교 생활, 교우 관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독립변수들을 통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 및 예측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선택방법(stepwise method)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고등학생의 흡연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인 흡연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스트레스 요인은 자기 자신, 가정 생활, 학교 생활, 교우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요인 중 가정 생활과 학교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요인이다. 이들의 설명력은 약 11%로 나타났다($R^2 = .105$). 흡연 유무(y)는 $= -.047 + .138(\text{가정생활}) + .089(\text{학교생활})$ 로 예측할 수 있다. 흡연 유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은 가정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beta = .223, p < .01$)이며 그 다음은 학교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beta = .160, P < .01$)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서 받는 스트레스 요인($\beta = -.0260, p > .05$)과 교우 관계에게서 받는 스트레스 요인($\beta = -.048, p > .05$)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따라서 흡연 유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은 가정 생활과 학교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이고 자기 자신과 교우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고등학생의 음주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인 음주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스트레스 요인인 자기 자신, 가정 생활, 학교 생활, 교우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요인 중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요인이다. 이들의 설명력은 약 9%로 나타났다($R^2 = .092$). 음주 유무(y)는 $= 1.539 + .198(\text{학교 생활}) + .148(\text{가정 생활})$ 로 예측할 수 있다. 음주 유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은 학교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beta = .214, p < .01$)이며 그 다음은 가정 생

<표 III-16> 스트레스 요인이 흡연·음주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흡연 유무			음주 유무		
	b	S.E	t	b	S.E	t
가정 생활	.138	.022	6.244	.148	.073	4.012
학교 생활	.089	.020	4.484	.198	.099	5.940
상수(a)	-.047	.057	-.843	1.539	.368	7.798
R^2	.105			.092		
F(P)	48.699			42.091		

활에서 받는 스트레스($\beta = .145, P < .01$)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서 받는 스트레스 요인($\beta = .035, p > .05$)과 교우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요인($\beta = -.008, p > .05$)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따라서 음주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은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이고 자기 자신과 교우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지수 정도가 그들에게 어느 정도 흡연과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인적 사항, 고등학생의 흡연·음주 실태, 인적 사항과 고등학생의 흡연·음주와의 관련성, 스트레스 지수 정도, 스트레스가 고등학생의 흡연·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을 경기도 G시 I실업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집한 자료 중 837명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SPSSWI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자 837명 중 '남자'가 41.5%(347명), '여자'가 58.5%(490명)로 조사되었으며, '1학년'이 52.7%(441명), '2학년'이 47.3%(396명)이 참가하였다. 성적은 '중(中)'인 학생이 48.3%(404명)로 가장 많았고, 친구의 수는 '2~3명'이 46.2%(387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 대다수인 82.1%(687명)가 '양친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손가정도 17.9%(15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전체 조사 대상의 흡연 유무는 '비흡연자'가 51.7%(433명), 과거 흡연경험자를 포함한 '흡연

자'가 48.3%(404명)로 나타났으며, 흡연자 중 처음 흡연을 한 시기는 중학교 때가 67.1%(1학년 18.6%, 2학년 28.5%, 3학년 20.0%)로 월등히 높았으나 초등학교 때도 17.6%로 고등학교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처음 흡연을 하게 되는 동기는 '호기심'이 54.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친구의 권유'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10.9%로 나타났다. 주로 흡연하는 장소는 '유흥업소에서'가 25.7%로 가장 많았고, '학교나 학원'에서도 22.0%로 나타났다. 담배를 구입하는 방법도 학생 본인들이 직접 '가게'에 가서 사는 것이 69.8%로 월등히 높았다. 하루 흡연량은 '5개피 이하'가 44.6%로 가장 많았으나 '한값 이상' 피우는 학생도 3.7%나 되었다. 흡연 대상은 '친구와 함께'가 83.2%로 월등히 높았다.

3. 음주 실태는 과거에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포함한 '음주자'가 78.1%의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최초 음주시기는 '초등학교' 때가 13.3%, '중학교' 때가 53.5%, '고등학교' 때가 18.3%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학교 3학년 때가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처음 음주를 하게 된 동기는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가 대부분이었지만 '스트레스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10.7%로 나타났다. 주로 술을 마시는 장소와 술을 구입하는 장소 역시 '술집 또는 음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술을 구하고 마시는 장소가 '술집 또는 음식점'으로 나타난 비율이 1학년에 비해 2학년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 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출입이 용이한 술집이나 음식점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음주회수는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고등학생의 45.1%보다 비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비율이 53.3%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는 학생도 1.8%의 비율로 나타났다. 음주량은 대부분 소주반병에서 2병까지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주 2병 이상을 마신다는 응답도 11.0%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음주의 심각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음주대상 역시 친구들과 함께 마시는 응답이 84.4%로 나타나 또

래집단끼리의 음주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 인적 사항과 흡연 유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알아보면, 먼저 성별에 따른 흡연 유무의 관련성은 남학생이 비흡연자가 45.0%, 흡연자가 55.0%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비흡연자가 56.5%, 흡연자가 43.5%로 나타났다. 피어슨의 카이제곱값이 10.898이고 자유도가 1일 때 점근 유의확률의 값은 .001이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흡연 유무의 관련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p < .001$).

학년별에 따른 흡연 유무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1학년은 비흡연자 53.5%, 흡연자 46.5%로 나타났으며 2학년은 비흡연자 49.7%, 흡연자 50.3%로 나타났다. 피어슨의 카이제곱값은 1.186이며 자유도가 1일 때 점근 유의확률은 .276이다. 따라서 학년별에 따른 흡연 유무의 관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p > .05$).

학업 성적, 친구의 수, 부모 존재여부와 흡연 유무와의 관련성에서는 각각 카이제곱값이 74.326 ($p < .01$), 40.033($p < .01$), 10.019($p < .05$)로 모두 존재한다고 나타났다.

5. 인적 사항과 음주 유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알아보면, 먼저 성별에 따른 음주 유무의 관련성은 남학생이 비음주자가 21.3%, 음주자가 78.7%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비음주자가 22.2%, 음주자가 77.8%로 나타났다. 피어슨의 카이제곱값은 .100이며 자유도가 1일 때 점근 유의확률은 .751이다. p 값이 유의수준 .05보다 크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음주유무의 관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학년별에 따른 음주 유무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1학년은 비음주자가 29.5%, 음주자가 70.5%로 나타났으며 2학년은 비음주자 13.4%, 음주자 86.6%로 나타났다. 피어슨의 카이제곱값이 31.637이고 자유도가 1일 때 점근 유의확률의 값은 .000이다. 따라서 학년별에 따른 음주유무의 관련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p < .01$).

학업 성적, 친구의 수, 부모 존재여부와 음주 유무와의 관련성에서는 카이제곱값이 각각 20.914

($p < .01$), 28.147($p < .01$)로 나타난 학업 성적과 친구의 수는 관련성이 있다고 나타났으나 부모 존재여부에 따른 음주 유무와의 관련성은 카이제곱값이 4.936($p > .05$)로 나타났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6. 스트레스 지수는 자기 자신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는 $2.58 \pm .67$, 학교생활 $2.53 \pm .89$, 가정생활 $2.19 \pm .81$, 교우관계 $2.00 \pm .75$ 로 나타났으며 전체 스트레스는 $2.33 \pm .59$ 이다.

7. 피어슨의 상관계수 r 을 구한 결과 흡연·음주 유무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8. 흡연·음주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지수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자기 자신, 학교 생활, 가정 생활, 교우 관계, 전체 스트레스에서 비흡연자와 흡연자, 비음주자와 음주자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스트레스 요인이 흡연 및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가 흡연에는 가정 생활($\beta = .215$, $p < .05$), 학교 생활($\beta = .174$, $p < .05$)순이며 그 설명력은 약 11%로 나타났다. 음주에는 학교 생활($\beta = .216$, $p < .05$), 가정 생활($\beta = .147$, $p < .05$)순이며 그 설명력은 약 9%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처음 흡연·음주를 하게 되는 동기 중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는 비율이 각각 10.9%, 10.7%로 나타난 것과 스트레스 요인이 흡연과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단계별 회귀분석에서 그 설명력이 각각 약 11%, 9%로 나타난 것을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흡연 및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부분이 호기심이나 친구의 영향 때문이지만 고등학생들이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도 10%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중 흡연과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정과 학교생활로 나타났으므로 학생들이 가정이나 학교생활에게 보다 덜 스트레스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교사나 부모가

적극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제언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에 입각하여 현실적으로 보다 효용성을 높이고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을 실업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고교생들에게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연구의 시기를 1학기로 하고 그 대상을 인문계와 실업계 1, 2, 3학년 전체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는 1986년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측정을 위하여 작성되었고 연구를 거듭하면서 중학생, 인문계고등학생들에게 알맞게 보완되었지만 실업계고등학생들에게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어 연구자 나름대로 수정 보완하였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다양한 스트레스 측정도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흡연·음주에 미치는 영향은 약 10% 정도인데 고등학생의 흡연·음주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또래 집단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는 나타났으므로 흡연·음주와 또래집단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흡연과 음주 유무에 대한 설문에서 흡연·음주의 빈도와 양 등을 구체적으로 묻지 못해 이 연구를 하는데 많은 제한점이 있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설문을 보다 세분화하고 정량적인 질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권이중 (1996). 청소년학 개론 : 신세대의 이해와 지도. 서울 : 교육과학사.
2. 김문실·이상미·이소우 (1994). 청소년

- 간호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3. 김소야자 외 4인 (1991).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서울체육청소년부.
4. 김용국 (1998). 강원도내 고교생들의 흡연 및 음주 실태 분석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을환 (1986).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일순 (1989). 우리나라 국민의 흡연 실태 : 흡연과 국민보건. 대한보건협회.
7. 김일순 (1992). 청소년 흡연의 심각성과 그 대책. 서울 : 교육연구사.
8. 김정겸 (1987).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김창기 (1992).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요인 및 적응 방법에 관한 고찰.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김행자 (2000). 중학생의 흡연 및 음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남옥희 (1994). 여고생 흡연집단과 비흡연 집단의 자아개념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노재숙 (1991).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_____ (1996).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마약퇴치운동본부.
14. 문화체육부 (1994).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연구. 문화체육부.
15. 박근영 (1994).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원인과 그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박종미 (1997).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원인과 그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박재학 (1999).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원인

- 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박영수 (1998). 학교보건학. 서울 : 신광출판사.
 19. 박순길 (2000). 청소년의 흡연·음주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부정민 (1999). 사회적 요인이 청소년의 음주·흡연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서일 외 5인 (1997). 한국 중·고등학생의 흡연양상의 변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2. 송연희 (1999). 중학교 여학생의 흡연 실태 및 관련 요인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신용일·노치숙 (1987). 교육심리학. 서울 : 동문사.
 24. 신혜선 (1999). 부모·친구 요인이 청소년 음주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안병조 (1984).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의 갈등실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윤주혜 (2001).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 예종이 (1999). 체육통계와 연구설계. 서울 : 도서출판 태근.
 28. 이명희 (1989).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장애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 이민규·김순화·금명자 공역 (1985). 스트레스 : 그 원인과 대책.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30. 이민규 (2001). (현대생활의) 적응과 정신건강. 서울 : 교육과학사.
 31. 이상수 (1992).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장애에 관한 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 이상영 (1993).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 이용욱·천성수 (2001). 청소년 단주교육의 이론과 실제. 대한보건협회.
 34. 이은영 (1997). 고교 유형별로 본 남자 고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와 흡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이정순 (1988).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요인과 그에 따른 대응행동에 관한 고찰.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 이종목 (1989). 직무스트레스의 원인, 결과 및 대책. 서울 : 성원사.
 37. _____. (2001). 두산세계대백과. 2001 (주)지식발전소.
 38. 장세진 (1992).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9. 장영희 (1995). 청소년의 음주·흡연과 학교생활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0. 장현갑·강성균 (1996).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학지사.
 41. 전덕임·양익홍 (1998). 청소년기 품행장애와 우울을 동반한 품행장애의 다면적 인성검사 반응양상. 한국심리학회지.
 42. 정충영·최이규 (2001). (한글용 SPSS 10.0)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 무역경영사.
 43. 정혜란 (2001). 남자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흡연과의 관련성.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4. 주혜경 (1994). 일부 남자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흡연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5. 진희숙 (1994). 청소년 흡연·음주 및 약물남용의 실태와 요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6. 천성수 (2001). 금주와 건강. (in) 대학생

- 활과 건강. 삼육대학교출판부.
47. 최해림 (1986). 한국 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행동적 상담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8. _____ (1999). 청소년 흡연률 실태 조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49. _____ (1999).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대구광역시 지부).
 50. _____ (2001). 흡연과 건강. 한국금연운동협의회.
 51. _____ (2000). 전국 청소년 흡연실태 조사(1988-2000). 한국금연운동협회.
 52.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1993). 청소년활동론. 한국청소년개발원.
 53. 한상철·조아미·박성희 (1997). 청소년 심리학. 서울 : 양서원.
 54. Bonaguro J. A, (1987). Self-concept, stress symptomatology and tobacco use. JOSH, Vol 57, No 2.
 55. Borrás J. M 외 4인(2000). Pattern of smoking initiation in Catalonia, Spain, from 1984 to 1992. Am J Pub Health 90(9), 1459-1462.
 56. Castro F. G 외 3인(1987). A multivariate model of the determinants of cigarette smoking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8(9), 273-289.
 57. Goldberger, L. & Shlomo Breznitz (1982). Handbook of Stress :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New York : The Free Press
 58. Holmes T. H & Rahe R. H.(1967). Theoretic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9).
 59. Ivancevich, J. M. & Matteson, M. T. (1980). Stress and work : A Managerial perspective. Scott : Foresman and Company.
 60. Lazaus, R. S (1981). The stress and Coping Paradigm. In C. E. Eisdorfer, D. Cohen, A. Kleinman & P. Maxim, Models for Clinical Psychology
 61. Lynch, J. J. (1977). The Broken Heart : The Medical Consequence of Loneliness. New York : Basic Books.
 62. Selye, H. (195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 McGraw Hill.
 63. Selye, H. (1965). Stress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Vol. 65, No. 3, P97
 64. Winnubst, J. A. M(1984). Stress in organizations. In P. J. D Drench, etc(ed.) hand-book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1 : John Wiley & Sons.